

《영사정팔경도(永思亭八景圖)》의 문화적 함의와 회화적 특징

정은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연구원, 미술사학 전공
jeje@aks.ac.kr

- I. 머리말
- II. 남원 영사정의 연혁과 문화적 함의
- III. 《영사정팔경도》의 주요 내용과 화풍
- IV. 맷음말

I. 머리말

영사정(永思亭)은 전북 남원시 금지면 택내리 내기마을에서 50m 거리의 야산에 있는 누정이다(도1). 영사정은 순홍안씨 가문의 효의 상징이자 조선중기 호남사림의 교유 장소로서 이에 대한 다수의 시문학이 전하고 있다. 또한 임진왜란 시에는 남원 일대에 주둔하던 명나라 장수들이 군사를 지휘하던 장소였으며 명나라 주지번(朱之蕃, 1548-1624)의 영사정 편액이 전하여 대외관계에서도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도1. 영사정에서 바라본 남원 금지평야

영사정은 안전(安豫, 1518-1571)이 선영(先瑩)을 향해 망배하기 위해 세운 정자로, 안전의 부친인 사제당(思齊堂) 안처순(安處順, 1492-1534)의 몰년인 1534년 이후부터 영사정의 이름 유래와 관련한 시를 지은 김인후(金麟厚, 1510-1560)의 몰년인 1560년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¹⁾ 이후 안전의 아들 안창국(安昌國, 1542-1595)이 1590년에 중수하였다. 1606년경 주지번이 남긴 ‘永思亭’의 편액 글씨가 있고, 영사정의 기둥 주련마다 주자의 『경재잠(敬齋箴)』을 절구로 나눠 새겼다. 정자 정면의 양쪽 기둥 주련에 “조심하고 조심하여 혹시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1) 현재까지 영사정의 창건 시기는 1521년과 1553년 설이 있으나, 1521년 설은 사제당의 건립연대와 혼동한 결과이고, 1553년 설은 이석홍 편저, 『남원의 문화유산』(남원문화원, 2001)에서 비롯되었으나, 확실한 전거는 밝히지 않았다. 『순홍안씨족보』(1936)에는 안전이 영사정을 세우고, 안창국이 영사정을 중수한 사실만 밝히고 있다.

입을 다물기를 주등이 막은 병같이 하고 사특한 생각 막기를 성을 쌓아 막는 것같이 하라(戰戰兢兢, 岡敢或易, 守口如瓶, 防意如城)”고 했던 것처럼 순홍안씨 집안 대대로 이어져온 스스로를 경계하는 마음 챙김의 지혜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영사정의 연혁은 물론, 역사적·문화적 가치에 대해 학계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 영사정이 주목을 받은 것은 1997년 한 전시회에서 처음 소개된 《영사정팔경도》를 통해서이다.²⁾ 그림은 지본수묵화로 전체 8폭 중 6폭만 남아 있고, 화면의 박락이 심하여 처음에는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각 화면 좌우 상단에 남아 있는 ‘殘照’와 ‘孤舟’, ‘方丈晴雲’ 등 일부 화제(畫題)가 양대박(梁大樸, 1543-1592)이 지은 「영사정팔영(永思亭八詠)」 시제(詩題)와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영사정팔경도’라고 명명되었다.³⁾

현재는 각 화폭을 유리 액자에 보관하고 있지만, 각 화폭의 크기는 박락 부분을 제외하고 대략 70×50cm로 일반 화첩의 크기와 달라 원래는 조선중기 유행한 8폭 소병풍(小屏風) 형식으로 장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영사정팔경도》는 16세기 조선 회화에서 유행했던 안견파 화풍과 절파 화풍을 반영하고 있는 팔경도 중 하나이다.⁴⁾ 소상팔경에 근거를 둔 고전적 제재의 팔경시(八景詩)가 조선에 유입되면서 실경 유람을 통한 명승팔경을 그린 팔경도는 실경산수화의 일종으로 자리매김한다. 《영사정팔경도》의 내용은 주로 영사정이 위치한 남원의 명승을 중심으로 선정된 팔경을 주제로 팔영시와 쌍을 이루어 묘사하였다. 《영사정팔경도》는 조선중기 실경을 바탕으로 그린 현존 팔경도가 희귀한 현실과 더욱이 남원 지역의 팔경을 그린 최고(最古)의 사례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학술적 연구 가치가 매우 높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그림의 주요 소재인 영사정의 연혁을 사료를 통해 재구성하고, 관련 인물들의 교유관계와 영사정과의 인연을 밝혀 영사정의 연혁과 문화적 함의를 정리하려 한다. 또한 양대박이 지은 「영사정팔영」과 여러 문인의 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남원의 실경 중 어느 명승을

2) 『朝鮮時代 繪畫의 眞髓』(竹畫廊, 1997) 개관 21주년 및 신축 기념전 전시도록 참조.

3) 안장리, 「한국팔경시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1997b), 213쪽; 梁大樸, 『淸溪集』 坤, 「永思亭八詠」.

4) 중국 팔경도의 전통과 한국 팔경도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보라, 「朝鮮時代 關東八景圖의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5), 18-33쪽.

그린 것인지 파악함으로써 조선중기 실경산수화로서 『영사정팔경도』의 회화사적 의의를 밝히려 한다.

II. 남원 영사정의 연혁과 문화적 함의

1. 제영으로 살펴본 영사정 연혁

남원이 순홍안씨의 세거지가 된 것은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의 9세손 안기(安璣, 1451-1497)의 부인 조양임씨(兆陽林氏)가 안기의 묘를 남원 송동면 흑성산 아래 정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안기의 아들 안처순(安處順, 1492-1534)은 1513년 진사에 합격하고, 이듬해 문과에 합격하여 예문관검열, 홍문관정자겸경연전경(弘文館正字兼經筵典經),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을 거쳐, 1518년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구례현감에 부임하여 내려왔다.⁵⁾ 조광조와 깊이 교유하여 기묘사화에 연좌되자 1521년 남원시 금지면 택내리에 강학 공간을 세우고 그의 당호를 따서 사제당(思齊堂)이라 하였다. 안처순이 지은 「사제당원운(思齊堂原韻)」은 아래와 같다.

草屋初開江上山	초옥을 강변 산에 지어두고,
江干日日釣魚還	강가에서 날마다 고기 낚아 돌아오네.
平生擅有茲江勝	평생 이 강의 승경을 독차지하였으니,
長謝天公早畀閒	하늘이 일찍이 한가로움 준 것에 길이 감사하네. ⁶⁾

위 시는 사제당을 중심으로 시절에 순응하며 안빈낙도하는 안처순의 삶을 반영하여 자기실천과 은둔이라는 시대적·공간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⁷⁾ 안처순의 「사제당원운」을 시작으로 안처순, 안전, 안창국 3대에 걸쳐 이곳을 왕래한 당대의 인사들이 화운한 시들이 바로 『사제선 생실기』 권5의 사제당제영이다. 제영시에는 양팽손(梁彭孫, 1488-1545),

5) 蘆禎, 『玉溪先生文集』卷3, 「承訓郎守奉常寺判官安公行狀」.

6) 梁彭孫, 『學圃先生文集』卷1, 「次安順之思齊堂韻」.

7) 이용우, 『韓國樓亭建築의 空間 特性에 관한 研究』,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논문(1994), 50-54쪽.

안위(安瑋, 1491-1563), 신잠(申潛, 1491-1554), 송순(宋純, 1493-1583), 안정(安珽, 1494-1548), 이도남(李圖南, 1496-1567), 송인수(宋麟壽, 1499-1547), 나세찬(羅世纘, 1498-1551), 신건(申健), 정도(丁煥), 김인후, 신희남(愼喜男, 1517-1591), 정소(鄭沼, 1518-1572), 기대승(奇大升, 1527-1572), 임희무(林希茂, 1527-1577), 정철(鄭澈, 1536-1593), 윤탕연(尹卓然, 1538-1594), 양사형(楊士衡, 1547-1599), 임제(林悌, 1549-1587), 한준겸(韓浚謙, 1557-1627), 강대수(姜大遂, 1591-1658) 등 총 21명의 시 24수가 실려 있다.⁸⁾ 그러나 1820년에 편찬된 문집에 실린 제영시의 순서는 시작(詩作)의 시점과 일치하지 않는다.

「영사정제영(永思亭題詠)」에 화운한 인물은 김인후·안위·안함(安奮, 1504-1562 이후)이고, 안처순의 「사제당원운」에 차운한 영사정 시 「영사정차사제당운(永思亭次思齊堂韻)」에 화운한 인물은 임희무·윤탕연·이후백(李後白, 1520-1578)·이언경(李彦愷, 1554년 문과)·최철견(崔鐵堅, 1548-1618)·기대정(奇大鼎, ?-1583년 이후)·신지제(申之悌, 1562-1624) 등이다. 이 중 김인후·안위·임희무·윤탕연 등 4인은 사제당제영에도 화운한 인물로 세대를 지속한 교유를 엿볼 수 있다. 이는 누정제영을 통해 뛰어난 문재를 가진 호남사람들이 동료의식을 결집하고 연대 공간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⁹⁾

위 명류들의 문집에서 영사정에 대해 언급된 내용 중 먼저 안처순이 영사정을 지었다고 적은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팽손(梁彭孫, 1488-1545)은 안처순과 같이 기묘사람의 한 사람이었다. 전라도 능성현 [지금 화순군] 쌍봉리가 본향이었던 그는 송흠(宋欽, 1459-1547)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¹⁰⁾, 관직도 안처순과 함께 홍문관 교리로 실록을 초찬(鈔選)한 인연이 있었다.¹¹⁾ 양팽손의 연보에 의하면, 1531년 용성(龍城, 지금

8) 安稟圭 編, 『思齋先生實記』권5, 「思齋堂題詠」; 21명 중 양팽손, 기대승, 안위의 시는 각각 2수씩 실려 있다.

9) 16세기에 와서 경상도와 전라도 지방의 사설 누정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당시 봉당의 과열로 인한 재지사족의 정치적 폐퇴나 낙향의 시기에 다수 설립되어 문화적 유행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상식, 「全北地方 樓亭의 歷史的 意味」, 『호남문화연구』 25(1997), 285-307쪽; 박종우, 「16세기 누정의 공간적 특성과 누정제영의 문학사적 의미-호남지역 누정제영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2(2001), 261-279쪽.

10) 宋欽, 『知止堂遺稿』권4, 「知止堂宋公行錄」에는 안처순을 비롯하여 양팽손·나세찬·송순·김인후·임억령·소세양·성세창·김안국·정순봉·송의경·박우·노극창·신향한·홍언필·정사룡 등 20여 명의 호남 문인들의 차운시가 있다. 이 중 사제당제영을 쓴 인물은 양팽손·나세찬·송순·김인후 등 4인이다.

남원)의 안처순을 방문하여 한 달을 체류하였고, 이후 1535년 안처순을 조문하고 그의 「사제당원운」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애도시를 지었다.

斯人清致仰高山	이분의 맑은 정취 높은 산을 우러르고
仙鶴飄然不記還	선학은 표연히 돌아오는 것을 잊었네.
笛裏山陽多感慨	피리 소리 울리는 산양(山陽)은 감개가 많은 법,
百年雲水屬人間	백년 운수(雲水) 인간세계에 속하였네.

自愛蔥籠背後山	푸른 초목 절로 사랑하여 산을 뒤로하고
江流朝海不會還	바다 향해 흘러간 강물은 돌아오지 않네.
一生芹曝懷君意	한평생 임금을 그리는 뜻 지극하여
不但漁樵共做間	촌부와 함께 한가롭지만은 않았으리. ¹²⁾

『학포선생문집』의 양팽손 연보에는 안처순이 “벼슬에 뜻을 접고 순강가에 정자를 축성하니 편액을 ‘永思’로 하였다. 선생이 세상을 떠난 후 영사정 시에 화운하여 비애의 뜻을 불였다”고 하였다.¹³⁾ 그러나 영사정에 대한 양팽손의 시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으며, 「사제당원운」에 차운한 위의 시에서 양팽손이 안처순의 사후에 그의 성정을 기리는 애듯한 마음을 잘 담고 있다. 한편 아래 김인후의 「차영사정운(次永思亭韻)」의 시제 옆에 영사정에 대해 “남원 금안에 있다. 안처순이 선영을 바라보기 위해 세웠는데, 명 사신 주지번이 그 편액을 썼다(在南原金岸, 安處順爲望先塋而建, 天使朱之蕃書其額)”라고 부연한 내용은 안처순이 영사정을 지었음을 밝히고 있다.¹⁴⁾ 이는 김인후가 안처순의 「사제당원운」과 안전의 「영사정원운」에 모두 차운하였기 때문에 그의 사후 문집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안처순이 세운 사제당을 영사정으로 적어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孝德傳前世	효덕이 앞 세대부터 전하니
亭名揭永思	정자 이름을 영사(永思)라 걸었네.
醉狂渾不省	한껏 취해 아랑곳하지 않고

11) 『學圃先生文集』卷5, 「附錄」.

12) 『學圃先生文集』卷1, 「次安順之思齊堂韻」.

13) 『學圃先生文集』卷4, 附錄, 年譜. “十四年乙未 先生四十八歲: 哭安思齊堂. 安公絕意榮途, 築亭于鵝江上, 扁以永思. 既歿, 先生續和亭韻, 以寓感傷之意.”

14) 金麟厚, 『河西先生全集』卷5, 「次永思亭韻」.

김인후의 문집에 「차영사정운」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쓴 것으로 보아 김인후는 영사정시 원운에 차운한 것을 알 수 있다.¹⁵⁾ 따라서 영사정에 대해 안전이 쓴 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확인되지 않는다. 이 시는 1545년 을사사화 이후 김인후가 장성으로 낙향한 후 1549년 『기묘제현수필』에 서문을 남긴 무렵 쓴 것으로 추정되며, 김인후의 시는 『죽암유고』에 「영사정제영」이란 시제로 편집되어 있다. 김인후와 화운한 인물은 순흥안씨 문중의 안위(安瑋, 1491-1563), 안함(安愷, 1504-1562 이후)이다.¹⁶⁾

안함은 자신의 「영사정제영」 뒤에 쓴 글에서 죽암(竹巖) 안전이 정자 이름을 '영사(永思)'라고 지은 이유에 대해 부모의 사후에도 생존해 계신 듯 중단 없이 부모를 공양하려는 '영언효사(永言孝思)'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혔다. 여기서 영언효사는 『시경』 「대아 하무(大雅 下武)」의 "길이 효심으로 사모하니, 효심으로 사모하는 것이 법도가 되었도다(永言孝思 孝思維則)"에서 유래한 것이다. 또한 스스로 효를 다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유연히 그 선의 단초를 일으키기 위해 여러 명류와 영사의 뜻을 읊고 안처순의 절구를 차운한 것은 한 가문이 배우고 효도하는 유래를 드러내 밝혔다고 평가하였다.

안위는 1529년 전라도 장령으로 남원까지 순력하며 9촌 숙부인 안처순을 방문한 아래 안처순의 사후 여러 해가 지난 뒤에 다시 찾은 사제당과 영사정에 대한 제시를 한 수식 지은 것으로 보인다.¹⁷⁾

15) 김인후는 안처순이 구례현감으로 내려온 무렵부터 교유하던 명현들과 왕래한 시문을 모아 엮은 『기묘제현수필』을 安瑋이 보여주자 이에 1549년 7월 後序를 남겼다. 『기묘제현수필』에는 김인후의 서문을 포함하여 총 21명이 쓴 서문, 시와 간찰이 실렸고, 맨 마지막에는 1830년 조인영(1782-1850)의 발문과 함께 그가 남긴 1829년 전라감영(完營)에서 개장한 기록이 있다.

16) 안함은 안처순의 고조 安從約의 형제인 安從信의 후손으로, 안처순은 그의 11촌 숙부가 된다. 안함은 성종대왕과 명빈 안동김씨의 딸인 徽靜翁主와 宜川尉 南燮元의 장녀 南蘭香에게 장가들었다.

17) 안위는 안처순의 증조 安琰의 형제 安琰의 후손으로, 안처순은 그의 9촌 숙부가 된다. 안위는 1521년 별시문과에서 병과로 급제, 예문관검열이 되었다. 그 뒤 벼슬이 올라서 예조좌랑·掌令을 지내고, 1539년 사헌부집의가 되어서 蘇世讓과 함께 당시 세도가인 尹任을 탄핵하다가 1541년에 충주목사로 좌천되었다. 이후 1554년 청홍도관찰사를 역임하고, 1555년 병조참의를 거쳐 1558년 전라도관찰사가 되었으며, 1560년 병조판서를 거쳐 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시호는 文簡이다.

一亭瀟灑倚青山
坐對斜陽不耐還
莫向終身思慕地
謂將偷學少年間

소쇄한 정자 하나 청산에 의지하니
석양 마주하고 앉아 차마 돌아가지 못하네.
종신토록 애듯하게 사모하려는 것이니
공부 싫은 소년 빈둥거린다 말하지 말게.¹⁸⁾

위 시 「영사정차사제당운(永思亭次思齊堂韻)」에서 안위가 “소쇄한 정자”라고 했던 것은 영사정을 말하는 것으로, 영사정은 안처순의 사후인 1534년 이후부터 적어도 안위가 1558년 전라도관찰사로 부임하여 재방문하기 전에 지었을 개연성이 높다. 안위는 시 뒤에 부연한 글에 안전(安豫)이 효우(孝友)를 독실하게 하라는 부친 안처순의 교훈을 지성으로 실천하였으며, 안처순이 사망하자 영사정을 지어 종신토록 사모하는 뜻을 불였다고 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함이 기술한 영사정 이름 유래와 상통한다.

1573년 임희무가 「영사정차사제당운」을 짓고 부연한 글에는 “과거 1557년 여름 사제당을 방문하였을 때, 앞 언덕에 임정(林亭)이 있어 올랐는데 시원하게 트여 앞으로는 큰 강에 임하고 뒤로는 높은 산을 지고 있어 참으로 절승(絕勝)이었다”고 하였다.¹⁹⁾ 여기서 임정은 정황상 영사정을 일컫는 것으로, 1557년 여름 이전에 영사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임희무는 또한 1573년 사제당을 방문하였을 때 “주인[안창국]이 한 책을 내왔는데, 편수(篇首) 1절은 안처순이 지은 것이었고, 그 뒤에 당대의 명현이 사제공 안처순과 영사공 안전의 집안에 전하는 효우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것이었다”고 하여 안처순의 「사제당원운」에 여러 문인이 화운한 글을 엮은 시첩이 있었으며, 임희무도 이때 안창국과 망년지교(忘年之交)를 기념하여 시를 써주었음을 알 수 있다.

정철(鄭澈, 1536-1593)이 지은 「죽암안공묘갈명(竹巖安公墓碣銘)」에 의하면 “일찍이 거제의 남쪽에 정자를 지어 선영을 바라보았다. 김하서의 시에서 효덕이 전세에 전하니 정자 이름을 영사라 걸었다는 것이 이것이다 (嘗構亭居第之南, 以望松楸. 金河西詩, 孝德傳前世, 亭名揭永思者是也)”라고 하여 영사정이 안전이 거주하던 집 남쪽 선영을 바라다볼 수 있는 위치에 지었음을 알 수 있다(도2).

18) 安瑋, 「永思亭次思齊堂韻」, 『思齊先生實紀』권5.

19) 林希茂, 「永思亭次思齊堂韻」, 梅談實紀, 『竹溪世蹟』권2; 林希茂, 「思齊堂題詠」, 『思齊先生實紀』권5.



도2. 사제당 안처순과 부령한씨 묘역(금지면 택내리 소재)

한편 19세기 편찬된 『용성지』에는 영사정에 대해 “영사정은 금안방에 있으며, 홍문관박사 사제당 안처순이 선대(先臺)를 바라볼 수 있도록 지은 것이다. 천사 주지번이 쓴 편액이 있다”고 하여 안처순이 영사정을 지었음을 밝혔으나, 이 역시 앞서 『하서문집』을 참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듯하다.²⁰⁾

결국 순흥안씨 문중의 안위와 임희무의 기록을 통해 위의 정황을 종합해보면, 영사정은 안전의 거처 남록에 위치하였다. 또한 영사정은 안전이 선친을 기리기 위해 지었고, 영사정의 이름 유래와 지어진 시점은 안처순의 사후인 1534년 이후부터 1557년 임희무가 사제당을 방문하여 「영사정자사제당운」을 짓기 전임을 알 수 있다.

이후 영사정은 안처순의 손자이자 안전의 아들인 안창국(安昌國, 1542-1595)에 의해 중건된다. 안창국의 자는 언승(彥升), 호는 매담(梅潭)이다. 7세에 모친상을 당해 3년 동안 조석으로 친전(親奠)하였고, 부친상에는 3년을 시묘하였다. 1590년 현인 안유(安裕, 1243-1306)의 후예이고 재행(才行)이 있다 하여 김천도찰방(金泉道察訪)에 제수되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 체임하여 집으로 돌아와 관직의 뜻을 버렸다. 그리고 선친의 뜻에

20) 房斗天 編, 『龍城誌』권2, 樓亭舊志, 永思亭. “永思亭在金岸坊, 弘文博士思齊堂安處順, 爲望先臺所建也. 天使朱之藩書其額.” 判書安瑋詩, “抱樹增悲感, 名亭寄孝思, 鯉庭當日事, 學禮又言詩.” 金麟厚詩, “孝德傳前世, 亭名揭永思, 醉狂渾不省, 却作興中詩.” 征倭總兵查大受詩, “永思亭上啓朱扉, 八座玲瓏爽籟飛, 岩下七松凝晚翠, 庭前疏月浸餘輝, 青城霸業殘還復, 芳草王孫去不歸, 千古興亡多少恨, 夕陽和淚濕人衣.”

따르기 위해 영사정을 중수하고 종신토록 우거하며 선대의 일을 추술(追述)하면서 바른 도를 행하였다.²¹⁾

안창국이 영사정을 중수하고 지은 「중수영사정근차전운(重修永思亭謹次前韻)」은 안전의 영사정 원운에 차운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小子傳遺業	소자 유업을 전하려
孤懷寄永思	외로운 심회를 영사정에 의탁하니.
澗然兩眼淚	두 눈에 눈물 비 오듯 흘러
難盡五言詩	오언시 끝맺기 어려워라. ²²⁾

이에 대한 차운시는 윤두수(尹斗壽, 1535-1601), 최렴(崔濂, 1550-1610), 김극인(金克寅, 1560-?), 임담(林潭, 1596-1652) 등이 지었다. 그중 최렴은 임진왜란 때 남원의 왜적을 막아 싸운 유장(儒將) 16인 중 한 명으로 친거된 인물로 1595년 남원부사로 부임하였을 때, 영사정의 옛 시에 감응하여 시를 지었다. 시에서 최렴은 “주인이 삼세에 걸쳐 효를 행하니, 길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구나(主人三世孝, 永思復永思)”라고 하여 안처순, 안전, 안창국 3대에 걸쳐 영사정에 얹힌 효를 칭송하였다.

안창국의 오랜 벗 최철견도 중수된 영사정을 찾아 1595년 2월 5일 아래와 같은 기문을 남겼다. 때는 안창국이 하세하기 약 5개월 전의 일이었다.

효로써 집안을 잊고 선친의 터전을 다쳤으니 사람들이 그 미덕을 칭송하였다. 산을 등지고 물가에 임하였으니 하늘이 내고 땅이 비장한 곳이니, 대개 선세부터 개척한 곳이다. [...] 자손이 계승한 자가 있어 동남 10보 거리에 소나무를 나누어 정자를 만들고 영사(永思)라 이를 지었다. 위에 산이 있어 사람들은 승경이 이름답다고 하였으나 공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 아래 강이 있어 사람들은 청절하다고 하였으나 공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 여기서 바라보며 앉으나 서나 마음과 생각은 북쪽에 있는 묘록(墓麓)의 바람나무 소리에 있었다. 공의 이러한 생각이 정자를 [영사정이라] 부르는 까닭이다.²³⁾

21) 『竹溪世蹟』권1, 梅潭實紀, 崔鐵堅, 「行狀」.

22) 『竹溪世蹟』권2, 梅潭實紀, 安昌國, 「重修永思亭謹次前韻」(天使朱之蕃書亭額).

23) 房斗天 編, 『龍城誌』권10, 「永思亭記」, “彥升, 吾晚友也. 以孝世其家肯構之善, 人稱其義. 山於背水平乎臨, 天作而地秘, 自先蓋啓之矣. 鉅公題板歷錄如昨日, 多少亭榭不知有此否, 地固勝人, 既賢事又貴, 豈獨所謂界闊而已哉. 子孫有繼之者, 東南十步, 強披松創亭, 永思名也. 上有山, 人皆曰, 佳勝, 公之思不爲此也. 下有江, 人皆曰, 清絕, 公之思不爲此

최철견은 안창국이 중건한 영사정의 유래를 집안에서 대대로 전승된 효에서 찾고, 사람들이 정자 주변 산과 강의 승경을 칭송하였으나 정자 안창국의 생각은 늘 정자 북쪽으로 바라다보이는 조상의 묘에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2. 1593년 명장의 남원 주둔과 영사정

임진왜란 때는 명나라 장수 약 70여 명이 명군을 이끌고 조선의 원군으로 들어왔다. 그중 사대수(查大受)는 철령위 사람으로 영원백(寧遠伯) 이성량(李成梁)의 가정(家丁)이었다. 1592년에 흄차통령남북조병원임부 총병(欽差統領南北調兵原任副摠兵)으로 기병과 보병 3천을 이끌고 9월에 나와 선조가 머문 행궁을 호위하면서 의주에 오래 머물렀다. 그 뒤 제독 이여송(李如松, 1549-1598)이 조선으로 나오자 그의 표하에 예속되었는데, 고양의 벽제 전투 때 미륵원(彌勒院) 앞 들판에서 선봉에서 왜적 1백여 급을 베었다.²⁴⁾

1593년 수천의 왜적이 경상도 악양의 촌락을 불태우고, 산음에서 살육 및 약탈 후 곡창지대인 전라도에서 군량을 확보하기 위해 함양으로 향하였다. 이에 명장(明將) 부총병의 선봉으로 사대수가 수천 명의 명군(明軍)을 남원까지 인솔하여 1593년 7월 6일 영사정에 진을 쳤으며, 그해 10월 이여송 제독을 따라 명으로 귀국하였다.²⁵⁾ 명군이 남원에 진을 치게 된 계기는 이곳이 영남과 호남의 관문이자, 조선의 남부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십자로의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사대수가 남원에 머문 것은 불과 3개월가량으로 영사정에서 진을 치고 있을 당시 그가 쓴 시가 남아 있어 그 정황을 알 수 있다.

永思亭上啓朱扉	영사정 위에서 붉은 사립문 열어놓으니
入座玲瓏爽籟飛	삼상한 바람 자리에 날아 들어오네.
岩下七松凝晚翠	바위 아래 일곱 소나무엔 저녁 푸름이 어렸고
庭前疏月浸餘輝	뜰 앞 성근 달은 석양에 잠기네.

曰. 坐於斯, 立於斯眼望, 而心思者, 墓麓在北, 風樹有聲. 公之思爲此, 而亭之所以號也.”

24) 申欽, 『象村集』권57, 「天朝詔使將臣先後去來姓名, 記自壬辰至庚子」, 李提督以下諸官一時往來各衙門.

25) 趙慶男, 『亂中雜錄』第四下, 癸巳 下, 7월 6일조.

青城霸業殘還復
芳草王孫去不歸
千古興亡多少恨
夕陽和淚濕人衣

왕조의 패업은 스러졌다 다시 서건만
방초 무성한 곳에 왕손은 가서 돌아오지 않누나.
천고의 흥망 얼마나 한스러운가.
석양에 눈물 흘러 옷깃을 적시네.²⁶⁾

사대수는 1593년 가을 해질녘에 영사정에 앉아 고국에서 평온한 삶을 그리워하며 송대 이중원(李重元)의 「역왕손(憶王孫)」 시구에 의탁하여 조선까지 원정 와 있는 자신의 현실을 탄식하고 있다.

『매담실기』의 「영사정천장제영(永思亭天將題詠)」에는 사대수의 시와 함께 명나라 장수 여영명(呂永明)과 오종도(吳宗道)의 시도 함께 실렸는데, 이들 역시 사대수의 지휘 아래 1593년 남원에서 주둔했던 장수들로 추정할 수 있다. 먼저 참모군사(參謀軍事) 여영명은 네 번이나 사절로 나올 만큼 조선 변방의 사정에 밝은 인물이었다. 다음 시는 분주한 하루를 마치고 쓸쓸한 가을 정취 속에 잠 못 들며 뒤척이는 명나라 장수의 심산한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

南原城外結幽居
知是何人日曳裾
三徑碧蘿浸石壁
一簾疎影嘆青渠

남원성 밖에 호젓한 거처 있으니
누군가 날마다 왕래한 것을 알겠네.
오솔길의 넝쿨은 석벽을 파고들고
주렴 사이 성근 그림자 푸른 도량에 비치누나.

紅塵不到人無暑
落葉飄來室自虛
無乃山靈妬俗客
秋風一夜促征車

세속 티끌 이르지 않으니 더위조차 느껴지지 않고
낙엽 날아와 거처는 절로 허명하네.
산신령이 속객을 시샘한 것은 아닌지
가을바람 밤새도록 나그네 길 채축하네.

여영명이 남원에서 주둔 이후에 월사 이정귀와 함께 평안도 철산의 거련관(車輦館)에서 수창한 시문이 남아 있다.²⁷⁾ 이정귀는 수창시에서 여영명이 남쪽 변방으로 가서 왜적을 죽이고 돌아온 것을 언급하며 그의 강직하고 공명을 앞세우지 않는 성품을 칭송하였다.

명군 지휘사 오종도의 자는 여행(汝行)이고, 호는 석루(石樓)로 절강

26) 查大受, 「永思亭天將題詠」, 『梅潭實紀』, 『죽계세적』권2.

27) 李廷龜, 『月沙集』권1, 三桂酬唱錄, 「到車輦村, 遇呂相公永明, 携酒話穩, 呂出一詩, 次韻贈之」.

소홍부 산음현 사람이었다. 무과를 통해 관직에 올랐다. 그 역시 1593년 이후 조선을 자주 왕래하여 조선 사정에 밝았다.

萬里征人暫倚樓
黃昏獨坐晚風秋
千山蒼翠何年盡
四壁煙花此地收

만리 정왜(征倭) 장수 잠시 누에 의탁하여
황혼녘 늦가을 바람에 홀로 앉으니.
천산의 푸른빛은 어느 해에 다할까.
사방 봄꽃은 이곳에선 졌나니.

丹鳳帝城遼海闊
望雲親舍越山悠
不堪抱樹增悲韻
搔首中華坐白頭

황제의 도성은 요해 건너 광활하고
구름 바라보니 부모님 계신 곳 산 너머 아득하네.
풍수지탄에 더욱 슬퍼지는 시운 감당 못 하고
나랏일 걱정에 백발 긁적이며 앉았네.

위 시에서 오종도는 부모를 모시지 못하고 타국에 나와 있는 탄식과 나랏일에 대한 걱정으로 안타까운 심경을 시에 잘 드러내었다. 오종도는 1593년 남원에 도착하여 조선의 창의사(倡義使) 김천일 장군이 진주성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운구 앞에서 제사를 올리기도 하였다.²⁸⁾

이후 1597년 정유재란 때는 명 군문(軍門) 형개(邢玠, 1540-1612)에 소속되어 수군 2천 명을 이끌고 와서 1598년에 순천의 부유현에서 진을 쳤다가 1600년 황제의 유시로 명군이 철수하면서 그해 11월 귀국하였다.²⁹⁾ 오종도는 조선에서의 전승을 기념하여 왜를 정벌하는 사적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한음 이덕형이 이에 「청영주개(請纓奏凱)」라는 제시를 써주기도 하였다.³⁰⁾ 이를 통해 당시 오종도의 전승 기념도가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명사 주지번의 영사정 편액

남원 사제당의 기념관에는 명사(明使) 주지번(朱之蕃, 1558-1624)이 쓴 영사정 편액이 있다.³¹⁾ 편액에는 영사정 세 글자 옆에 “中書舍人朱南村”

28) 李廷馨, 『東閣雜記』下, 「本朝璿源寶錄」2.

29) 申欽, 『象村集』권57, 「天朝詔使將臣先後去來姓名, 記自壬辰至庚子」.

30) 李廷龜, 『月沙集』권17, 「倦應錄」中.

31) 주지번의 생년 1558년은 이궁익이 『연려실기술』에서 조정견의 생년일시가 주지번과



도3. 주지번 필, 영사정 편액, 사제당기념관



도3-1. 인장판각 부분

書”라 쓰고 “南村, 朱之番章”이라 찍은 방인(方印) 2과(頗)가 판각되었다(도 3, 도3-1).³²⁾ 현재 영사정에 걸려 있는 편액은 주지번 편액의 모각본으로 인장은 모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명대 중서사인은 내각 중서과(中書科)에 관직을 두어 고칙(誥勅)의 서사(書寫) · 제조(制詔) · 은책(銀冊) · 철권(鐵券) 등의 일과 서적 · 책보(冊寶) · 조서(詔書) · 고명(誥命) · 보문(寶文) · 비액(碑額) 등의 일을 관장하였기 때문에 한림원 학사들이 중서사인으로 충원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편액에서 ‘중서사인’이라 한 것은 당시 주지번이 한림원수찬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주지번은 1605년 11월 14일 명나라 황손이 태어난 것을 조선에 알리기 위한 조사(詔使)로 양유년(梁有年)과 함께 1606년 2월 3일 파견이 결정되었다. 주지번 일행의 사행 일정은 1606년 2월 16일 북경을 출발하여 3월 24일 압록강을 건너 의주에 도착하였고, 4월 2일 평양에 도착, 4월 4일 총수산, 4월 6일 개성, 4월 10일 한양에 입성하였다. 4월 11일 남별궁에서 하마연을 행하고, 4월 12일 남별궁에서 익일연(翌日宴)과 다례(茶禮)를 행하였으며, 태평관에서 칙서를 받는 영칙의(迎勅儀)를 행하였다. 4월 14일 한강 제천정과 압구정 유람, 4월 16일은 명 태조 주원장의 부친 주세진(朱世珍), 인조순황제(仁祖淳皇帝)로 추존의 기일이라 행사가 없었고, 4월 17일 선조의 청연(請宴), 4월 18일 상마연, 4월 19일 한강 잠두를 유관(遊觀), 4월 20일 귀국길에 올라 4월 29일 평양에 도착하여 4월 30일 대동강에서 선유하였고, 5월 13일 압록강을 건너 6월 17일경 북경에

똑같았다는 내용과 그의 당호를 주지번이 ‘雲莊稼隱’이라 써주었다는 기록에서 확인되었다(정생화, 「朱之蕃의 문학활동과 한중 문화 교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1쪽 참조). 주지번은 명 금릉인으로 호는 蘭鶴 · 자는 元介 · 元介 · 元升이다. 1595년 전시의 진사로 장원하여 한림원수찬을 제수받고,吏부右侍郎까지 역임하였으며, 사후에는 예부상서로 추증되었다.

32) ‘南村’은 주지번의 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인장에서 ‘蕃’자가 ‘番’으로 판각되었다.

도착하였다.³³⁾ 따라서 3월 24일 압록강을 건넌 이후부터 5월 13일 다시 압록강을 건널 때까지 약 50일을 조선의 사행노정 및 한양에서 체류하였다. 특히 한양에서 외교문서를 전달하는 공식 일정을 마친 4월 13일 이후부터 약 1주일을 한양에서 보낸 후 귀로에 올랐다. 주지번은 당시 조선의 사행에서 총 265수의 시와 7편의 글을 지어 『사조선고(使朝鮮稿)』로 편찬하였다.³⁴⁾

당시 주지번과 시문을 수창한 조선인들은 대개 의주부터 한양까지 명사신의 영접 임무를 맡은 원접사와 관반 일행으로 당시 원접사는 대제학 유근(柳根), 관반사는 이호민(李好閔)이 차출되었고, 이하 종사관은 허균(許筠), 조희일(趙希逸), 이지완(李志完) 등이었다. 한양에서 체류하는 동안 한강 유람에는 공식 접반관 외에 조선 문인이 다수 참여하였는데, 그중 영사정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인물이 송영구(宋英壽, 1556-1620)와 한준겸(韓浚謙, 1557-1627)이다.³⁵⁾

주지번은 사행 당시 성균관 명륜당, 영은문, 모화관 편액 등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³⁶⁾ 그러나 주지번의 영사정 편액과 관련하여 송영구와의 사제(師弟) 인연으로 주지번이 완산으로 남행하는 과정에서 남원 영사정까지 방문하였는지는 지금까지 의문으로 남아 있다. 송영구는 1593년 이조좌랑에 천거, 5월 성절사의 서장관으로 차출되어 정사 홍인상(洪麟祥)과 명에 다녀왔고, 그해 11월 28일 복명하였으며 그날로 완산 집으로 돌아갔다.³⁷⁾ 이후 1613년 5월 성절겸천추사로 북경에 갔다가 11월 복명하였다.³⁸⁾ 송영구 집안에는 ‘望慕堂’의 편액 글씨가 전하는데, 전주객사에 걸린 행서체 ‘豐沛之館’의 편액과 함께 주지번의 글씨로 알려져 있다.³⁹⁾ 이들 현판과 관련하여 송영구가 중국 사행 당시 북경에서 만난 주지번에게 과거시험을 보는 요령을 알려주어 사제지간의 인연을 맺은

33) 『선조실록』권198, 39년 4월 10일-4월 20일조.

34) 『사조선록역주』4, 「주지번 봉사조선고」, 12-202쪽; 『使朝鮮錄』下(北京圖書出版社, 2003).

35) 주지번의 조선에서의 시문 교류에 대해서는 정생화, 앞의 논문, 32-106쪽 참조.

36) 『선조실록』권200, 39년 6월 3일(경자).

37) 宋英壽, 『瓢翁先生遺稿』卷3, 附錄, 季譜.

38) 이정귀, 「송영구비명」, 『국역 국조인물고』권51(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정은주, 『조선시대 사행기록화』(사회평론, 2013), 〈부록 1〉朝鮮使臣 對明(1392-1637) 出來表 참조.

39) ‘望慕堂’의 편액에는 朱之蕃書라 각자되어 있지만, ‘豐沛之館’에는 주지번의 글씨라고 판단할 수 있는 단서는 없다.

것을 계기로 주지번이 직접 완산을 방문하여 편액 글씨를 써주었다는 이야기가 구전한다. 주지번이 진사로 장원한 해가 1595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위 이야기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전거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송영구의 문집에 1606년 관직을 그만두고 완산 집에 돌아온 무렵, 주지번이 조사로 오니 그의 회환을 기다렸다가 완산 집에 돌아왔다고 하였다.⁴⁰⁾ 따라서 송영구가 1593년 서장관으로 명에 잣을 때 북경에서 만났던 인연으로 주지번이 조선에 온 것을 기다려 한양에서 해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원접사 유근이 송영구의 고모부였던 관계로 주지번과 어렵지 않게 접촉할 수 있었을 것이다.⁴¹⁾ 망모당이 지어진 것이 그의 부친 송영(宋翎, ?-1587)이 돌아간 후 1607년경이므로 망모당 편액 글씨는 주지번이 1606년 조선에 왔을 때 송영구가 그를 한양에서 만났을 당시 받아 왔을 개연성이 높다. 결국 주지번의 완산 및 남원 행차는 조선에서 공식 일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으며, 송영구가 주지번을 한양에서 만나고 귀향했던 점에서도 주지번의 남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준겸은 사제당제영을 쓴 인물 중 한 명이다. 「기묘제현서첩지(己卯諸賢書帖識)」에 의하면, 안처순은 한준겸의 외가준속으로, 1601년 한준겸이 도체찰부사(都體察副使)로 남원을 지날 때 서손 안옹국(安應國)이 조광조 이하 명현들의 필적을 모은 것을 보여주어 이를 한양으로 가져와 기묘제현 중 한 명이었던 이연경(李延慶)의 외손이자 사우인 강복성(康復誠)에게 보여주고 대학사 이호민에게 문의하였다. 이에 이호민이 국장(國匠)에게 더 깨끗이 장황하게 하고 한석봉에게 '己卯諸賢手帖'이라 제호를 써줄 것을 부탁하였다.⁴²⁾ 이것이 『기묘제현수첩』을 한준겸이 장황하게 된 전말이다. 한준겸은 주지번이 한강에서 주유(舟遊)할 때 동행하며 한강범주와 잠두봉 관련 시에 수창하였기 때문에⁴³⁾, 그가

40) 宋英考, 『瓢翁先生遺稿』卷3, 附錄, 季譜, “三十四年 丙午, 棄官歸全州舍, 公赴郵後, 卽欲辭歸, 而嫌於悻悻, 且詔使朱之蕃適出來, 待其回還後, 卽棄歸鄉廬。”

41) 宋英考, 『瓢翁先生遺稿』卷3, 附錄, 挽辭[柳根], “君是夫人姪, 初逢季十三. 白頭淹郭外, 丹旐指天南. 萬事浮雲散, 黃梁一夢酣. 悲歡君自了, 獨立我何堪.”

42) 韓浚謙, 『柳川遺稿』, 雜著, 「己卯諸賢書帖識」; 「己卯諸賢手帖」 필사본은 안처순이 당시 12명의 교유 제현과 1517-1531년 왕래한 편지 39건을 엮은 것으로, 한준겸이 1601년경 남진 제발이 맨 앞에 있다. 한편 『기묘제현수첩』은 1603년 김인후의 별문이 있고, 안처순이 구제현감으로 떠날 때 총 24명의 명현이 써준 전별시문의 모음이다.

43) 주지번, 『봉사조선고』, 「和答韓柳川送別詩」; 「漢江」; 「蠶頭峯」(김한규 옮김, 『사조선록』 역주』4, 116쪽, 315-319쪽).

주지번에게 영사정 편액의 글씨를 부탁하였다면 충분히 써주었을 것이다. 또한 주지번 사행 당시 많은 선비들이 그에게 액호(額號)를 다시 써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했던 점에서도 주지번이 당호 편액 글씨를 다수 써준 것으로 보이며, 영사정 편액도 그중 하나일 개연성이 높다.⁴⁴⁾

III. 《영사정팔경도》의 주요 내용과 화풍

4-1. 제2폭 〈수죽청풍〉



4-2. 제3폭 〈순강모우〉



4-3. 제4폭 〈방장청운〉



4-4. 제5폭 〈야도고주〉



4-5. 제6폭 〈단안쌍루〉



4-6. 제7폭 〈폐성잔조〉



도4. 《영사정팔경도》 현존 6폭, 16세기 후반, 지본수묵, 개인

1997년 죽화랑에서 개최한 전시회를 통해서 처음 소개된 《영사정팔경도》는 전체 8폭 중 제1폭과 제8폭이 누락되어 6폭만 액자로 표구되어

44) 『승정원일기』 제591책, 영조 원년 4월 28일(을미).



도5. 양대박, 「영사정팔영」, 『청계집』

남아 있고(도4), 화면 우측 또는 좌측 상단에 남아 있는 ‘方丈晴雲’, ‘殘照’, ‘孤舟’ 등 일부 화제가 양대박(梁大樸, 1544-1592)이 지은 「영사정팔영」의 시제와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영사정팔경도’라 명명되었다(도5).

양대박은 1544년(중종 39) 남원에서 양의(梁儀, 1514-1576)의 서자로 태어나 성훈(成渾)에게 수학하였고⁴⁵⁾, 남원 청계동에 그의 별업(別業)을 두고 박순(朴淳, 1523-1589), 정철 등 여러 문인들과 시사(詩社)를 만들어 교유하였다. 그는 1572년 4월 원주목사였던 부친을 따라 금강산을 유람하고 『금강산기행록』을 남긴 데 이어, 그해 11월 명나라 사신 한세능(韓世能, 1528-1598)을 맞는 원접사 정유길(鄭惟吉, 1515-1588) 일행 중 한이학관(漢吏學官)의 직책으로 참여하였다.⁴⁶⁾ 당시 명사를 맞이하기 위해 의주에서 한양을 왕래하는 도중과 한강 유람에서 명사 및 관반들과 수창한 시(詩) 수십 수가 양대박의 『청계집』에 전한다.

허봉(許筭, 1551-1588)이 1574년 성절사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갔을 때, 회정 중 북경의 등달(滕達)⁴⁷⁾이라는 인물이 보낸 전별물 중에는

45) 『만가보』, 남원양씨; 『승정원일기』 제582책, 영조 즉위년 12월 17일(병술).

46) 규장각 소장 〈의순관영조도〉의 관반 좌목에 양대박의 이름이 등장한다. 여기에는 양대박의 자가 ‘抱眞’, 본관은 南原으로 적혀 있다. 학관은 1524년(중종 19)에 둔 승문원의 薦官職이다.

47) 등달의 자는 季達이고, 호는 北海이다. 중국 明나라의 문인으로, 1572년(선조 5) 명나라 사신 韓世能과 함께 조선에 와서, 鄭惟一·柳成龍·韓濩·梁大樸 등과 교유하였다.

권벽, 유이현, 한호, 양대박, 윤유후, 정자중, 허봉의 시를 엮은 칠자시(七子詩)가 포함되어 있었을 정도로 1572년 한세농의 조선 사행 이후 이들의 시가 북경 문인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얻었던 듯하다.⁴⁸⁾

허균(許筠, 1569~1618)이 쓴 『청계집』 서문에 의하면, 양대박이 백광훈(白光勳, 1537~1582), 임제(林悌, 1549~1587)와 같이 수창한 『용성창수록(龍城唱酬錄)』을 1582년 접한 허봉은 원전(圓轉)하고 순숙한 양대박의 시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⁴⁹⁾

허균은 1590년 가을 양대박을 처음 만난 이래 자주 교유하였는데, 그의 첫인상을 옥처럼 맑고 봄처럼 온화한 용모에 행동도 맑아 노을이 오르듯 구름이 퍼지는 듯하다고 평하였다. 또한 고금의 성패와 현인 호걸의 출처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구슬을 펜 듯 막힘이 없으며, 시의 필치는 도도하여 당(唐)을 범 삼았고, 북송 강서파(江西派)를 넘나들어 천고 사인(詞人)의 무아한 운치를 다하여 사람들이 존경하고 감복하였다고 하였다.⁵⁰⁾

이후 양대박은 1592년 임진왜란을 당하자 사재를 털어 의병을 일으켜 고경명을 맹주로 추대하고 자신의 두 아들과 가동 백여 명을 의병에 편입시키는 등 스스로 소유(召諭)의 임무를 맡아 직접 격문을 작성하여 제읍(諸邑)에 전파하였고 3천여 명의 의병을 모았다. 고경명의 의병이 6월 8일 전주에 주둔하기로 하였는데, 전주로 가는 도중 임실의 운암(雲巖)에서 적을 물리쳐 큰 공훈을 세웠다. 양대박은 의병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과로로 병을 얻어 그해 7월 7일 진중에서 병사하였다. 그 후 정조 대에 병조판서에 추증되고, 충장(忠壯)이라는 시호를 받았다.⁵¹⁾ 그의 유문(遺文)은 1799년 정조의 명으로 편찬된 『양대사마실기(梁大司馬實記)』에 수집되어 전하고 있다.

명사 응화(熊化)가 1609년 5월 17일 의주 용만관에서 지은 『청계집』 서문에 의하면, “과거 내가 난우 주공사[주지변]가 조선에서 돌아와

48) 許筠, 『荷谷先生朝天記』下, 1574년 9월 6일(정축).

49) 『清溪集』 乾, 序文.

50) 許筠, 『惺所覆瓿藁』 권4, 文部 1, 「清溪集序」. 강서파는 북송 후기 杜甫를 시조로 黃庭堅, 陳師道, 陳爲義를 중심으로 聚會가 없는 관념적 시파로, 강서인들뿐만 아니라 四僧에 의해 계승되었다.

51) 양대박의 제실은 남원시 화정동(왕정동)에 있고, 묘는 남원시 화정동 한우물마을 북편 산 701-1에 있다.



도6. 『영사정팔경도』에 그려진 주요 실경 위치, 「남원부지도」, 1872년, 규장각

말하는 것을 듣길, 조선에 양씨가 있는데 내 항상 香湯에 손을 씻은 후 청계당 시를 읽었다(往余聞蘭嵎朱公使東還之言曰, 朝鮮國有梁氏子者, 吾嘗香湯盥手後, 讀其清溪堂詩云)"고 하여 기이하게 여기다가 자신이 직접 조선에 왔을 때 그의 아들인 해미사군(海美使君) 양경우(梁慶遇)가 선친 양대박의 『창의격문(倡義檄文)』을 보여주면서 서문을 부탁하여 지은 것이라 밝히고 있다. 웅화는 특히 양대박

이 임실의 운암에서 왜적을 무찌른 것에 감탄하면서 자신은 양대박의 문장뿐만 아니라 무용(武勇)까지 알게 되었다면서 양대박을 제갈량에 비유하기까지 하였다.⁵²⁾ 1572년 한세승의 조선 관반 일원이었던 양대박이 명사들과 창화한 시가 명나라에 알려지게 되었을 것이고, 1606년 시행 온 주지번 이후 웅화를 비롯한 중국인들 사이에서 본격적인 명성을 얻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영사정팔영』 역시 양대박의 이러한 시명(詩名)을 반영한 수작이다.⁵³⁾ 양대박의 팔영시는 현존하는 『영사정팔경도』와 합벽을 이루고 있어 그림에 그려진 실경을 유추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남원의 형승은 동으로 지리산을 껴안고 서로는 순자강을 끼고 있으며 남으로 요천이 지나고 북으로 교룡산이 있다. 양대박의 팔영시와 그림 역시 지리산, 순자강 나루, 요천 외에도 금석교, 청계동 등 영사정을 중심으로 한 남원 승경을 주요 소재로 하였다(도6).

『용성지』에는 양대박 이전 양성지(梁誠之, 1415-1482), 서거정(徐居正, 1420-1488), 강희맹(姜希孟, 1424-1483) 등 조선전기 문인이 남원의 승경을 소재로 남긴 시들을 인용하였다. 먼저 서거정은 1462년(세조 8)에

52) 熊化, 『清溪集』 乾, 序文.

53) 梁大樸, 『青溪集』 권2, 「永思亭八詠」.

영남으로 봉명하여 가는 길에 남원을 경유하여 축천정에 올랐다. 정자 근처에 산수 경치는 남원부의 으뜸 승경 중 하나로, 대개 사절이 왕래할 때 영송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이때 정곤수(鄭峴壽, 1538~1602)의 고조부 정옥경(鄭沃卿)이 낙안군수로 부임하였고, 그의 자서(姊婿) 이현납(李獻納)이 금산군수로 동석하여 적이 느끼는 바가 있어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을 시켜 그림을 그려내고, 서거정의 서체로 서문과 시를 요구하여 후대에 알 수 있도록 사실에 따라 약주(略註)를 하여 한 측으로 장황하여 걸어두었다.⁵⁴⁾ 이는 남원 승경을 그린 가장 이른 사례로 주목된다.

양성지는 남원 승경 중 광한루·지리산·교룡산성을 소재로 시를 남겼으며⁵⁵⁾, 강희맹은 1470년 이후 교룡산성·요천·유인궤성(劉仁軌城)·광한루·만복사(萬福寺)·율림(栗林)·금석교·용담사(龍潭寺)·동장수(東帳藪)·창활수(昌活藪)·대모천(大母泉) 등 남원의 형승 11처에 대한 시를 남겼다.⁵⁶⁾ 이 중 양대박 시의 소재와 겹치는 곳은 요천·금석교 등이다.

양대박의 아들 양경우(梁慶遇, 1568~1638)와 정홍명(鄭弘溟, 1592~1650)이 각각 지은 「청계당팔경(聽溪堂八景)」은 청계당 일대 남원 승경을 읊은 시로, 방장추월(方丈秋月)·교룡모설(蛟龍暮雲)·안봉잔조(雁峯殘照)·낙동취연(駱洞炊煙)·후곡채미(後谷採薇)·전계조어(前溪釣魚)·죽오청풍(竹塢清風)·하당소우(荷塘疏雨) 등 시제가 동일하다.⁵⁷⁾ 청계당은 남원 서쪽 문덕봉 아래 지은 방원진(房元震, 1577~1650)의 집이었다. 이 중 지리산과 죽오청풍, 전계조어는 「영사정팔영」과 같은 소재이다.

양대박은 송순·김인후·고경명·임억령·박순 등과 함께 「면양정삼십영」을 남겨 경물을 통한 시문 창작으로 호남사람의 주기론적 미의식을 구현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⁵⁸⁾ 양대박과 영사정의 인연은 우선 양대박이 남원 출신이라는 지역적 연고에서 찾을 수 있지만, 안영(安瑛, 1565~1592) 집안과의 관계도 주목된다. 안영은 안처순의 증손이고, 판서 이후백

54) 鄭峴壽, 『栢谷集』권1, 「題四佳徐文忠公南原丑川亭詩序後」; 徐居正, 『四佳集』권10, 「南原丑川亭詩」, “緣崖絕壁畫屏開, 中有高樓石作臺. 萬古溪聲流不盡, 百年山色疊成堆. 鐵牛何日能呼起, 黃鶴今朝可跨來. 此是帶方佳麗地, 風流題詠愧非才.”

55) 梁誠之, 『訥齋集』卷5, 「古今詩」.

56) 姜希孟, 『私淑齋集』권1, 「湖南形勝十一絕」.

57) 梁慶遇, 『霽湖集』권1, 「聽溪堂八景」; 鄭弘溟, 『崎庵集』권8, 「聽溪堂八景」.

58) 안장리, 「16세기 팔경시에 나타난 미의식의 양상 -〈倭仰亭三十詠〉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25집(2007), 9~20쪽.

의 외손이다. 부친 안선국(安善國)이 그의 나이 4세에 돌아가자 백부 안창국(1542-1596)에게서 배우고 자랐다. 1586년 안영은 김인후의 외손녀 제주양씨[고암(鼓巖) 양자징(梁子澂)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안영은 양대박과 이종지간이었던 옥과 출신 유학(儒學) 유팽로(柳彭老, 1554-1592)와 함께 고경명을 의병장으로 추대하고 그의 종사관이 되었다. 이때 양대박도 의병을 모집하여 그들과 함께 하였다.⁵⁹⁾ 결국 이러한 관계를 종합해볼 때, 양대박은 임진왜란 때 함께 의병을 일으킨 유팽로와 교유하였던 안영 집안과도 적지 않은 인연이 있었을 것이다.

양대박이 「영사정팔영」을 지은 시점은 정확하지 않지만, 양대박의 생몰년을 감안할 때 16세기 후반으로 볼 수 있다. 《영사정팔경도》 역시 양대박의 팔영시가 지어진 시점 또는 그와 멀지 않은 시기에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팔경도는 남송대 소상팔경의 고전적 이상경 추구와 새로 친도한 한양의 명승을 노래한 신도팔경(新都八景)에서 비롯되었고, 『신증 동국여지승람』을 시작으로 간행된 지리지를 통해 명승팔경이 다수 선정되면서 개인의 유거지(幽居地)를 중심으로 한 팔경의 선정이 점차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6세기 말에서 17세기 문인들은 산수를 유람하면서 유시(遊詩)나 유기(遊記)를 짓고 동행했던 화원에게 《영사정팔경도》와 같이 유람한 산수를 그리게 하고 이를 시화 합벽첩으로 만드는 것이 새로운 풍조로 정착된다. 이 시기 문인들의 동류의식에 기반한 결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⁶⁰⁾

제1경: 창송냉월(蒼松冷月) 푸른 솔에 걸린 쓸쓸한 달빛

石作層峯黛七松 돌이 만든 충봉에 일곱 그루 소나무
蒼鬢不改歲寒容 푸른 솔은 겨울 찬바람에도 얼굴을 바꾸지 않네.
虬枝政好月來掛 규룡의 솔가지에 달이 와 걸려 정히 좋으니
人在曲欄尋短筇 사람은 굽은 난간에서 짧은 지팡이 찾누나.

1593년 명장 사대수가 쓴 영사정 시 중 “영사정 위에서 붉은 사립문 열어놓으니, 삽상한 바람 자리에 날아 들어오네. 바위 아래 일곱 소나무엔

59) 黃暉 編, 『旌忠錄』권3.

60) 이상아, 「조선시대 팔경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8), 43-66쪽.

저녁 푸름이 어렸고, 뜰 앞 성근 달은 석양에 잠기네”라는 구절과 비교할 때, 영사정에서 바라본 정경 중 일곱 그루 소나무가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따라서 팔경 그림 중 없어진 《영사정팔경도》 제1폭은 바로 영사정에서 바라본 일곱 소나무를 중심으로 주변 경경을 그린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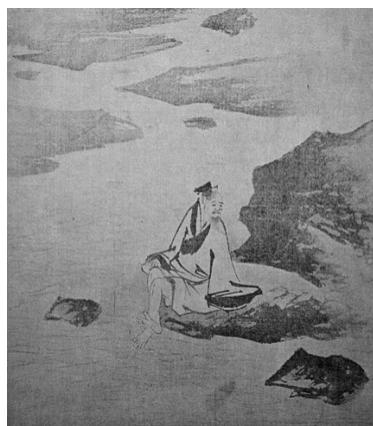
제2경: 수죽청풍(脩竹清風) 대숲에 이는 맑은 바람

誰遣龍鍾擁小亭 누가 대나무로 작은 정자 에워싸게 하였는가.
 千竿如來拂雲青 천 그루 대나무는 구름 떨쳐낸 듯 푸르다.
 人間熱惱除無術 인간세상 번뇌 떨쳐낼 방도 없고
 留得涼飄滿一庭 서늘한 바람만 뜰에 가득 머무네.

제2폭 〈수죽청풍〉의 근경은 넓은 암반 위에 높이 솟아 우거진 오죽(烏竹)의 대숲을 배경으로 3인의 처사가 편안히 앉아 한가로이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다. 1616년경 남원을 지나던 이수광(1563-1628)이 영사정에 대해 지은 오언시에는 “빼어난 경치에 대한 명성을 예 듣고, 지금 오니 눈이 다시금 놀랍구나. 한송(寒松)은 여전히 고색이고 대숲(脩竹)은 절로 가을 소리로다. 너른 들판은 하늘과 통하는지 의심되고, 시내 돌아들어 땅은 평온을 얻었네. 정자 안 한없이 좋으니, 지는 석양에 아쉬운 정이 남누나”라고 하여 영사정의 주변 경치로 소나무와 대숲을 들었고, 정자에서 바라다 보이는 정취로는 광활한 금지평야에 요천이 흐르는



도4-1. 제2폭 〈수죽청풍〉 부분,
 《영사정팔경도》



도7. 이경운, 〈고사탁족〉, 16세기,
 건본수목, 고려대학교박물관

풍광을 들고 있다.⁶¹⁾ 따라서 화면 속 제2경도 제1경에 이어 영사정 주변 대숲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화면 속 인물은 모두 두건과 도포를 착의한 모습으로 이목구비까지 자세히 표현하지 않았지만, 자유로운 인물의 자세가 화면 전체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준다. 대나무는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가지가 쏠려 있어 일종의 풍죽(風竹)을 묘사한 것으로 세 잎의 긴 죽엽이 서로 가지에서 교차하는 것은 탄은(灘隱) 이정(李霆, 1554~1626)의 묵죽도와 유사한 화풍을 따르고 있다. 암반 측면은 절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부벽준 대신 중묵으로 암질을 묘사하였고, 암반의 형태는 농묵과 중묵의 선을 혼용하여 변화를 주었다(도4-1). 이러한 표현은 이경윤(李慶胤, 1545~1611)의 산수화첩 중 〈고사탁족〉의 물가 사장과 암반 묘사에서도 나타난다(도7). 암반 아래까지 바위와 수초 사이로 흘러든 잔물결의 파동 역시 대나무와 함께 화면에서 동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근경의 토파는 농묵으로 강조하고 잡목은 태점과 미점을 거칠게 변형시켜 표현하였다. 중경은 요천이 잔잔히 흐르고, 근경 토파의 농묵과 대조를 이루는 원산은 담묵으로 처리하여 원근감을 표현하였다. 특히 원산의 정상은 부분적으로 여백을 두어 최소한의 붓놀림으로 토산의 변화상을 잘 묘사하였다. 이러한 산 묘사는 16세기 후반 이불해의 〈예장소요도〉의 원산 표현에서도 볼 수 있다.

제3경: 순강모우(鶴江暮雨) 순강의 저녁 비

江頭烟斂欲斜陽	강변 안개 걷히고 해 기우러는데
山外歸雲雨腳長	산 너머 돌아가는 구름에 벗줄기 세차구나.
風捲浪花驚不定	바람 일자 물결 놀라 출렁이고
漁舟箇箇入蒼茫	고깃배 점점이 창망에 아득하네.

제3폭 〈순강모우〉는 섬진강의 상류인 순강(鶴江)을 묘사하였다. 순강은 순자강(鶴子江)으로도 불리며, 진안현 중대산(中臺山)과 태인현 운주산(雲住山)의 물이 합쳐 흘러서 남원부 서남쪽 40리에 이르러 순자진이 되고, 곡성현에 들어가서 암록진(鴨綠津)이 된다.⁶²⁾ 순자진의 배는 중주원

61) 李暉光, 『芝峯先生集』卷18, 「永思亭」. “勝概昔聞名, 今來眼更驚. 寒松猶古色, 脩竹自秋聲. 野曠天疑豁, 川廻地得平. 亭中無限好, 落日有餘情.”

62) 『新增東國輿地勝覽』卷39, 全羅道, 南原都護府.

(中洲院) 앞에 곡성현과 함께 조선(造船)하여 오갔다.

화면의 전체적 경률 배치는 우측으로 치우친 구도이다. 원산은 담묵을 위주로 정상은 농묵과 중묵으로 표현하여 강조하였다. 원경의 대기에 들이치는 비바람을 사선구도로 충차를 둔 담묵으로 넓게 묘사한 점이 특징이다 (도4-2). 이러한 표현은 《소상팔경도》 중 〈소상야우도(瀟湘夜雨圖)〉의 비 내리는 풍경에서도 나타난다(도8).⁶³⁾ 근경 강안 토파의 한쪽으로 치우친 소나무 가지는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음을 암시한다. 키 작은 잡목은 농묵의 끝으로 거칠게 표현하였고, 토파는 특별한 준법을 사용하지 않고 중묵과 농묵의 묵선을 X자로 교차하여 과량감을 표현하였다. 비바람에 일렁이는 파도는 가는 선을 거칠게 교차하여 표현하였다. 화면은 해질녘 비바람을 피해 순자강 나루를 향해 들어오는 어부의 배 한 척이 중심을 이룬다. 배에는 2명의 어부가 도롱이를 걸치고 황망히 노를 짓고, 강안의 나무들이 비바람에 심하게 흔들리는 것과 대조적으로 강안 정자 안의 선비는 여유롭게 앉아 비 내리는 풍경을 그윽이 바라보고 있다. 도롱이를 입고 있는 어부의 묘사는 나옹(懶翁) 이정(李楨, 1578-1607)이 그린 것으로 전하는 산수화첩 중 〈수향귀주도(水鄉歸舟圖)〉를 연상시킨다. 강안 정자의 옥우는 평행투시도법이 적용되지 않아 시각적으로 어색하며, 높이 올라간 지붕의 치미가 조선중기 양식을 잘 보여준다.



도8. 〈소상야우〉, 《소상팔경도》,
16세기, 국립진주박물관

제4경: 방장청운(方丈晴雲)⁶⁴⁾ 방장산에 피는 청운

一朶花峯聳半空 한 송이 꽃봉오리 반공에 솟았고,
閑雲舒卷杳茫中 한가로운 구름 아득하게 퍼지다 걷히네.

63) 국립진주박물관 소장 〈소상팔경도〉에 대해서는 박해훈, 「조선시대 소상팔경도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35~141쪽 참조.

64) 『청계집』에는 方丈‘青’雲으로 되어 있으나, 그림의 화체에는 方丈‘晴’雲으로 되어 있다.

傍人莫作無心看 무심코 한 것이라 생각지 마오.
膚寸能成潤物功 한 점의 운기 만물을 윤택하게 하였으니.

제4폭 〈방장청운〉은 근경의 남원 견두산(犬頭山) 너머 멀리 편백림을
낀 계곡을 지나 운무 자욱한 지리산 서부 만복대, 고리봉, 노고단이
조망되고 원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반야봉이다(도4-3). 지리산은 남원
부의 동쪽 60리에 있다. 방장(方丈)이라고도 칭하였으며, 백두산의 산맥이
뻗어 내려 산세가 높고 웅대하여 수백 리에 용거한다고 하여 두류(頭流)라
고도 칭하였다. 양대박은 1560년 봄 처음 남원의 지리산 일대를 유람한
데 이어 1565년과 1580년 가을, 그리고 1586년 지리산 일대를 여행하고,
『두류산기행록』을 저술하였다.⁶⁵⁾ 양성지의 시에 의하면, “지리산은 푸르
고 푸른 반공에 의지하고, 천암만학에서 물보라를 날리네. 골짜기 속
청학(青鶴)은 응당 나를 비웃고 산사의 좋은 어이하여 들리지 않는가”라고
하였다.⁶⁶⁾

화면에 계곡 주변을 담묵으로 처리하고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채색
없이 바탕과 같이 두고 가는 담묵선으로 부분 처리한 것은 이경윤의
폭포 그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원산은 중묵으로 거칠게 여백을
두어 토질을 표현하였고, 가장 먼 산은 담묵의 선염으로 표현하였다.
원산과 중경의 침엽수림과 경계는 산자락에 운염을 둘러 구분하고, 계곡
과의 경계는 운무로 표현하여 지리산 절경의 신비감을 더한다. 근경과
중경의 침엽수는 먹의 농담으로 원근을 표현하였다. 중경에서 중심을
이루는 계곡은 물끌법을 위주로 주변 토질과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묘사하
였다. 근경의 토파는 농묵으로 표현하여 화면에서 안정감을 준다.

제5경: 야도고주(野渡孤舟) 나루터의 외로운 배
一葉輕舠野水濱 물가에 한 조각 배,
烟波隨處即通津 연파 따라가는 곳이 곧 통진(通津)이라.
沙汀盡日少來往 모래톱엔 온종일 왕래하는 이 적고
付與苔磯垂釣人 이끼 낀 물가 낚시 드리운 사람뿐.

65) 양대박, 『정계집』권4, 「두류산기행록」.

66) 梁誠之, 『訥齋集』卷5, 古今詩, 「智異山」. “智異蒼蒼倚半空, 千巖萬壑灑飛淙. 洞中青鶴應欺我, 胡不來聞岳寺鐘.”



도4-4. 제5폭 〈야도고주〉 부분,
『영사정팔경도』



도9. 이경윤, 〈고사인물〉, 16세기,
견본수묵, 고려대학교박물관

제5폭 〈야도고주〉는 강안에서 나귀를 탄 인물이 시자를 앞세우고 유유히 흐르는 순강에서 노 젓는 뱃사공을 바라보고 있다. 화면 속 인물이 있는 곳은 진촌(津村)으로, 순자강 하류를 왕래하는 나루터로 교통의 요지였다. 지금은 전라선 철교가 가설되어 있고 이와 가까운 곳에 전곡교(全谷橋)를 통하여 국도 17번 선이 남원과 곡성 사이를 잇고 있다.⁶⁷⁾

화면 속 강안에 마른 나무는 가지만 양상한 해조묘의 수지법으로 늦가을의 계절적 배경을 암시한다. 순강 고깃배 위의 어부, 강안의 나귀 탄 인물과 고깃배를 가리키는 시자를 묘사한 선묘가 제2경의 암반 인물과 비교할 때 자연스럽지 못하지만, 〈고사인물〉과 유사한 해조묘의 나무 묘사, 인물 배치를 보여준다(도9). 원산은 중묵으로 묘사하였고, 중경의 순강은 세선을 반복하여 일렁이는 물결을 묘사하였다. 근경의 강안은 농묵과 중묵으로 토파를 묘사하였고, 나뭇가지는 농묵의 세선에 강약을 조절하여 표현하였다(도4-4).

제6경: 단안쌍루(斷岸雙樓) 단안의 쌍루

紅樓如畫水東西 그림 같은 붉은 누각 물 동서로 나뉘 있고,
羽客曾同一鶴樓 신선은 한 마리 학과 함께 거처했네.
千古遺蹤但雲物 천고의 남은 자취 덧없는 구름이요,
祇今行旅汎丹梯 지금은 행려가 신선의 산길 더럽히네.

67) 곡성문화원 편, 『青溪洞史』(곡성문화원, 1991), 37-38쪽.

제6폭 〈단안쌍루〉는 〈청계동도(淸溪洞圖)〉에 의하면⁶⁸⁾, 순자강의 중류 자만연(自滿淵)을 사이에 두고 단애 위에 보허정(步虛亭)과 두 번째 북정(北亭)이 마주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도10, 도45). 화면의 위쪽 보허정은 양대박이 청계동에 조성한 아홉 정자 중 중심이 되는 곳으로 양대박이 거처하면서 손님을 맞이하던 정자였다. 뒤편에는 절벽 석산인 성출봉(聖出峰)이 있어 천애의 요지가 되기도 하였다. 보허정과 마주한 화면 아래쪽의 북정은 청계동으로 가는 중요한 나루터로, 남원부 초랑방(草郎坊)에서 환봉(環峰) 기슭과 순자강 좌안을 따라 내려가 이곳 북정에서 배로 보허정에 이를 수 있었다.⁶⁹⁾ 1939년경에 북정 일대 산기슭 경지에는 남원-광주 간 광남철도를 놓았는데, 지금은 2차선 포장도로가 되었다.



도10. 1796년 이후 제작된 목판 〈청계동도〉의 모각본

화면 속 근경의 누대가 있는 단애 근처 토파에는 양상한 가지가 묘사되

68) 〈청계동도〉는 1580년 양대바이 남원 순강의 牛巖灘에서 立巖灘 사이 약 7km가량의
兩岸에 조성한 보허정을 비롯한 남정, 서 2정, 동 2정, 북 3정 등 9개 정자와 근처
산수 경관을 목관 지도로 제작한 것으로, 제작연대는 정조가 충장공이란 시호를 내린
1796년 이후로 추정되며 지도의 좌우와 하단에 「青溪洞周回形址總論」, 「忠壯公主張修
立總論」 등의 注記를 기록하여, 당시 이 일대의 지형과 정자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곡성문화원 편, 『青溪洞史』(곡성문화원, 1991), 3-12쪽, 38쪽.

69) 곡성문화원 편, 앞의 책, 36-39쪽.

어 앞에서 살펴본 제5경의 소슬한 늦가을 풍경과 공통점이 있다. 그물을 드리우고 조업을 하는 어부의 바쁜 일손과 대조적으로 북정 내의 선비는 풍류 속에 망연히 신선의 자취를 쫓는 듯하다. 양쪽 단에는 특별한 준법을 사용하지 않고 묵선을 교차하여 거친 암벽 느낌을 표현하였다.

제7경: 폐성잔조(廢城殘照) 황폐한 성터의 낙조

古壘荒涼雉堞欹 옛 보루 황량하고 성첩 기울어
 當年蠻觸尙依依 당시 오랑캐의 침범 오히려 눈에 선하네.
 如今獨帶孱顏在 지금 홀로 혐준한 산에 들려 있고
 千古無言送落暉 천고의 말 없는 석양빛 가물거리네.

제7폭 〈폐성잔조〉의 상단은 단안에 위치한 영사정을 묘사하였고, 인물이 지나는 연무 아래 하단의 산성은 남원 금지면 택내리 성안마을 북쪽에 있던 성안산성으로 추정된다. 산성 위에서 내려다보면 금지면의 넓은 별관과 섬진강이 한눈에 들어와 군사 방어상 중요한 입지조건을 갖추었다. 성벽은 200m 내외의 산 정상과 능선을 따라 축조하였다. 성안산성은 임진왜란 때 사대수가 영사정에 진지를 구축할 때 명나라 군사를 주둔시키던 성터로 추정된다. 영사정 뒤편의 마을은 과거부터 역원(驛院)의 역할을 하였던 곳이다.

화면 구도에서도 평원법의 느낌보다 산세에 따라 양쪽의 능선을 감싸고



도4-6. 제7폭 〈폐성잔조〉 부분,
 《영사정팔경도》



도11. 이정, 〈산수도〉 부분,
 16세기, 견본수목, 국립중앙박물관

있는 산성의 입지를 표현하기 위해 우측으로 치우친 변각 구도가 특징이다(도4-6). 화면의 구도는 이정(李楨, 1578-1607) 〈산수도〉의 편파 구도와 매우 유사하며 민가의 옥우 주변에 목책을 묘사한 것도 유사하다(도11). 성루 앞의 토파에는 잎이 많은 활엽수가 군락을 이루어 다른 화폭의 양상한 수지법과 대조를 이룬다(도4-5). 한편 산성으로 통하는 길을 따라 올라가는 나귀 탄 인물과 거문고를 든 시자는 산성의 이미지와 대조적으로 평온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제8경: 장교효설(長橋曉雪) 장교의 새벽 눈발

一夜郊原銀界遙 한 밤 들녘에 은세계 아득하고,
曉來寒氣挾風驕 새벽녘 찬 기운 바람 끼고 교만하구나.
江梅度臘香魂返 설달을 보낸 강 매화의 향흔 돌아오나니
催得清愁訪野橋 맑은 시름 재촉하며 들녘 다리 찾아왔네.

『영사정팔경도』에서 제8폭은 누락되었지만, 1462년 이곳을 지난 강희맹의 시로 판단해보건대 장교(長橋)는 남원부의 서남쪽 4-5리에 있던 금석교(金石橋)로 규모가 매우 큰 홍교였음을 알 수 있다.⁷⁰⁾ 강희맹의 금석교 시에 “분류하는 강 양쪽 언덕에 장교가 걸려 있고, 수면에는 침침하게 그림자 흔들리네. 천 자나 되는 홍교는 허리와 등이 넓어, 느릿느릿 돌아가는 길이 멀다고 느껴지지 않네”라고 하였다.⁷¹⁾ 그러나 금석교는 과거 문인들의 시와 『신증동국여지승람』 외에는 그 지명을 찾아보기 어렵다. 당시 금석교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남원의 옛 교량은 부 남쪽 2리에 있는 광한루 앞의 오작교이다. 오작교는 길이 약 25m, 너비 2.6m의 규모로, 1582년 남원부사 장의국(張義國)이 광한루를 고쳐 지으면서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요천의 물을 끌어다가 석축하여 4구(區)의 홍교로 축조되었다고 하여 시구 속 금석교의 규모를 참조할 수 있다.⁷²⁾

7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9(1530년 증보)의 전라도, 남원도호부, 교량조에는 금석교(부의 서남쪽 4리)만 소개되었으나, 『남원읍지』(1787년경 간행)에 소개된 교량에 금석교(부의 서쪽 5리), 龍頭亭橋, 兩水亭橋, 哑魚口橋, 金川橋, 栗川橋, 烏鵲橋(부의 남쪽 2리, 광한루 앞)를 소개하였다.

71) 姜希孟, 『私淑齋集』 卷1, 七言絕句, 「湖南形勝十一絕」. “奔川兩岸駕長橋, 波面沈沈影動搖. 千尺玉虹腰背闊, 緩尋歸路不知遙(右金石橋).”

72) 『용성지』 권3; 『용성지』 권4.

IV. 맷음말

본문에서는 영사정의 연혁을 제영과 사료를 통해 재구성하고, 《영사정 팔경도》의 문화적 함의를 정리하였다. 안전이 선친 안처순을 기리기 위해 거처의 남록에 영사정을 지은 시점은 안처순의 사후인 1534년 이후부터 적어도 1557년 임희무가 사제당을 방문하여 영사정 제영을 쓰기 이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자 이름은 부모의 사후에도 길이 효성을 바치려는 ‘영언효사(永言孝思)’의 마음에서 ‘영사(永思)’라 지었다. 이후 영사정은 1590년 안전의 아들인 안창국에 의해 중건되어 삼대에 걸친 순홍안씨 문중의 효를 상징하고, 제영을 중심으로 16-17세기 호남사림의 결속을 다지는 장소가 되었다.

임진왜란 때는 명장(明將) 부총병의 선봉으로 사대수가 수천 명의 명군을 남원까지 인솔하여 1593년 7월 6일 영사정에 진을 쳤으며, 그해 10월 제독을 따라 명으로 귀국할 때까지 약 3개월 동안 명군의 근거지가 되었다. 당시 사대수를 비롯하여 참모군사 여영명, 명군 지휘사 오종도가 영사정에서 지은 시가 남아 있어 임진왜란 때에도 영사정이 남원에서 명나라 장수의 진지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남원 사제당의 기념관에는 명사 주지번이 쓴 영사정 편액이 있다. 주지번은 1606년 2월 16일 북경을 출발하여 3월 24일 압록강을 건너 의주에 도착하였고, 4월 10일 한양에 입성하였다. 이후 4월 12일 칙서를 조선 조정에 전달하였고, 4월 20일 귀국길에 올랐다. 한양에서 외교문서를 전달한 공식 일정을 마친 4월 12일 이후부터 약 1주일을 한양에서 보낸 후 귀로에 오른 것이다. 한양에서 체류하는 동안 한강 유람에는 공식 접반관 외에 조선 문인이 다수 참여하였는데, 그중 영사정 편액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인물이 송영구, 한준겸이다. 남원 영사정의 주지번 편액 글씨를 두고 송영구 집안의 ‘망모당(望慕堂)’의 편액 글씨와 전주객사의 ‘풍파지관(豐沛之館)’의 편액과 함께 1593년 송영구가 중국 사행 때 주지번과 맷은 사제 인연으로 완산에 남행하여 쓴 것으로 구전되지만, 주지번의 일정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1606년 주지번이 사신으로 오니 한양에서 그의 회정을 기다렸다가 완산 집에 돌아왔다고 하여 주지번과 해후하였을 때 망모당의 편액 글씨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준겸의 경우 주지번이 한강에서 주유할 때 동행하며 한강변

주와 잠두봉 관련 시에 수창하였다. 한준겸이 외가존속 안처순을 기리기 위해, 주지번에게 영사정 편액의 글씨를 부탁하였다며 충분히 써주었을 것이다. 주지번 사행 당시 많은 선비들이 그의 글씨로 액호를 다시 써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에서 영사정 편액도 그중 하나일 개연성이 높다.

『영사정팔경도』는 본래 8폭 소병풍 형식으로 장황되었던 것이 현재는 제2폭부터 제7폭까지 총 6폭만 전하지만, 양대박의 「영사정팔영」과 각각 짹을 이루고 있다. 제1경 〈창송냉월〉은 영사정의 일곱 그루 소나무에 걸린 쓸쓸한 달빛, 제2경 〈수죽청풍〉은 영사정 뒤쪽 대숲에 이는 맑은 바람, 제3경 〈순강모우〉는 순강의 저녁 비, 제4경 〈방장청운〉은 지리산에 피는 청운, 제5경 〈야도고주〉는 순강 나루터의 외로운 배, 제6경 〈단안쌍루〉는 단안 위에 마주한 보허정과 북정, 제7경 〈폐성잔조〉는 영사정 인근 황폐한 산성 터의 낙조, 제8경 〈장교효설〉은 금석교의 새벽 눈발을 소재로 묘사하였다. 『영사정팔경도』는 양대박의 생졸년을 고려할 때, 「영사정팔영」과 동시에 제작되었거나 그와 멀지 않은 16세기 후반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화풍적 특징은 전반적으로 나옹 이정(1578-1607), 이경윤(1545-1611) 등의 작품과 비교할 때, 16세기 후반 산수화풍을 반영하고 있다. 먼저 원경의 산이 위암적이지 않고 평원적으로 펼쳐진 남도의 산수를 반영했으며, 중경은 주로 강을 끼고 근경은 단애의 암반이나 강안 토파 위의 정자 풍경을 묘사한 강남산수화의 전형적 구도를 보여준다. 또한 중경에 강이 없는 경우는 계곡으로 대신하거나 연무나 운무로 원경과 근경의 공간을 분할하는 배경 처리도 나타난다. 근경에 가파른 단애나 강안의 바위, 토파의 표현에서 흑백 대비가 강한 묵법의 준찰을 이용하여 표현하였고, 공필의 세부 묘사보다는 속도감이 가해진 자유분방한 필력이 돋보인다. 인물은 간일한 점경인물로 조선중기에 유행하던 고사인물도의 주요 소재인 암반 위에 앉거나, 시자를 거느리고 나귀를 탄 채 강안에서 원경을 바라보거나 정자 속에 홀로 앉아 자연을 완상하는 모습, 또는 거문고를 든 시자와 함께 나귀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인물의 복식은 다소 경직된 세선을 사용하였고, 얼굴의 이목구비는 표현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영사정팔경도』는 16세기 조선 회화에서 유행한 안견파 화풍과 절파

화풍을 절충하고 있는 팔경도 중 하나로, 남원 지역의 팔경을 영사정을 중심으로 그린 현존하는 최고(最古) 작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학술적 연구 가치가 매우 높다.

이상에서 살펴본 영사정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때, 지역의 공동 자산으로서 영사정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시도(市道) 차원의 문화재 지정 및 체계적인 보존 노력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南原邑誌』 1787년 간행본.
『思齊先生實紀』(장서각 소장 B91-139).
『順興安氏族譜』 1765 · 1936년 간행본.

- 房斗天, 『龍城誌』권10.
申炅, 『再造藩邦志』권2.
安克昌 · 安囂 編, 『竹溪世蹟』(奎 5891).
梁大樸, 『青溪集』권2 (奎 4516~v.1~2).
梁彭孫, 『學圃集』권1.
李德懋, 『青莊館全書』권68.
鄭元容, 『經山集』.
鄭重器, 『梅山集』권1.
鄭澈, 『松江別集』권1.

- 곡성문화원 편, 『青溪洞史』. 곡성문화원, 1991.
김봉곤 외 공역, 『섬진강 누정 산책』. 순천대학교 자리산권문화연구원, 2012.
노재현, 「팔경시와 고지도에 투영된 여주팔경의 전승양상」.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 2011.
노재현 · 신상섭 외, 「八景 構造分析을 통해 본 傳統文化景觀 眺望圈域에 대한 實證的 研究-임실군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5, 2007.
박명희, 「청계 양대박의 산수 유람과 시적 표현」. 『한국고시가문화연구』 24, 2009.
박해훈, 「조선시대 소상팔경도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안장리, 「『동국여지승람』‘신증’ 소재 팔경시의 특징」. 『한국한문학연구』 20, 1997a.
_____, 「한국팔경시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7b.
_____, 「16세기 팔경시에 나타난 미의식의 양상 -〈俛仰亭三十詠〉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25, 2007.
양태순, 「청계 양대박의 생애와 한시」. 『한국한시작가연구』 6, 2001.
이보라, 「朝鮮時代 關東八景圖의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이상아, 「조선시대 팔경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이석홍 편저, 『남원의 문화유산』. 남원문화원, 2001.
정생화, 「朱之蕃의 문학활동과 한중 문화 교류」.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정훈, 「전주 팔경시의 형성과정 및 특성 연구」. 『한국언어문학』 85, 2013.
최한선, 「새롭게 보는 양대박론」. 『전남도립대학교 논문집』 6, 2004.

국 문 요 약

영사정(永思亭)은 전북 남원시 금지면 택내리 내기마을에서 50m 거리의 야산에 있는 누정이다. 영사정은 순흥안씨 가문의 효의 상징이자 조선중기 호남사람의 교유 장소로서 이에 대한 다수의 시문학이 전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영사정의 연혁을 사료를 통해 재구성하고, 관련 인물들의 교유관계와 영사정과의 인연을 밝혀 영사정의 연혁과 문화적 함의를 정리하였다. 그 결과 안전(1518~1571)이 선친 안처순을 기리기 위해 거처의 남록에 영사정을 지은 시점은 안처순의 사후인 1534년 이후부터 적어도 1557년 임희무가 사제당을 방문하여 영사정 제영을 쓰기 이전임을 알 수 있었다. 정자 이름은 부모의 사후에도 길이 효성을 바치려는 『시경』 출전의 ‘영언효사(永言孝思)’의 마음에서 ‘영사(永思)’라 지었다. 이후 영사정은 1590년 안전의 아들인 안창국(1542~1595)에 의해 중건되어 삼대에 걸친 순흥안씨 문중의 효를 상징하고, 제영을 중심으로 16~17세기 호남사람들이 결속을 다지는 장소가 되었다. 또한 임진왜란 시에는 남원 일대에 주둔하던 명나라 장수들이 군사를 지휘하던 장소였으며, 명나라 주지번의 영사정 편액이 전하여 대외관계에서도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영사정이 주목을 받은 것은 1997년 한 전시회에서 처음 소개된 《영사정 팔경도》를 통해서이다. 이 작품은 지본수묵화로 전체 8폭 중 6폭만 남아 있고, 화면의 박락이 심하여 처음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각 화면의 측면 상단에 남아 있는 ‘殘照’와 ‘孤舟’, ‘方丈晴雲’ 등 일부 화제(畫題)가 양대박(梁大樸, 1543~1592)이 지은 「영사정팔영(永思亭八詠)」 시제(詩題)와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영사정팔경도’라고 명명되었다. 현재는 각 화폭을 유리 액자에 보관하고 있지만, 각 화폭의 크기는 박락 부분을 제외하고 대략 70×50cm로 일반 화첩의 크기와 달라 원래는 조선중기 유행한 8폭 소병풍 형식으로 장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영사정팔경도》의 내용은 주로 영사정이 위치한 남원의 명승을 중심으로 선정된 팔경을 주제로 팔영시와 쌍을 이루며, 사계절의 풍광을 묘사하였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양대박이 지은 「영사정팔영」과 여러 문인의

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영사정팔경도』의 남원 실경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그린 것인지 파악하고 당대의 화풍과 비교하여 16세기 조선 회화에서 유행한 안견과 화풍과 절과 화풍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1경 〈창송냉월〉은 영사정의 일곱 그루 소나무에 걸린 쓸쓸한 달빛, 제2경 〈수죽청풍〉은 영사정(永思亭) 뒤쪽 대숲에 이는 맑은 바람, 제3경 〈순강모우〉는 순강의 저녁 비, 제4경 〈방장청운〉은 지리산에 피는 청운, 제5경 〈야도고주〉는 순강 나루터의 외로운 배, 제6경 〈단안쌍루〉는 축천을 사이에 두고 단안 위에 마주한 보허정과 북정, 제7경 〈폐성잔조〉는 영사정 인근 황폐한 옛 산성 터의 낙조, 제8경 〈장교효설〉은 금석교의 새벽 눈발을 소재로 한 양대박의 「영사정팔영」과 『영사정팔경도』가 쌍을 이룬다. 따라서 『영사정팔경도』는 양대박의 생줄년을 고려할 때, 「영사정팔영」과 동시에 제작되었거나 그와 멀지 않은 16세기 후반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사정팔경도』는 조선중기 실경을 바탕으로 그린 현존 팔경도가 희귀한 현실과 더욱이 남원 지역의 팔경을 그린 최고(最古) 사례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학술적 연구 가치가 매우 높다.

투고일 2016. 6. 22.

심사일 2016. 7. 28.

게재 확정일 2016. 8. 22.

주제어(keyword) 영사정팔경도(Eight scenic views of Yeongsa-jeong pavilion), 영사정(Yeongsa-Jeong pavilion), 팔경도(Eight scenic views), 양대박(Yang Dae-bak), 주지번(Ju Ji-beon), 안처순(An Cheo-sun), 호남사림(Honam scholars), 순흥안씨(Sunheung Ann clan)

Abstracts

The Cultural Implications and Pictorial Characters of Eight Scenic Views of Yeongsa-jeong Pavilion(永思亭八景圖) Jeong, Eun-joo

According to record of Sunheung An clan and poetical composition, Yeongsa-jeong pavilion built by An Jeon(安豫, 1517-1571) between 1534 and 1557 to take care of graves of his father An Cheo-sun(安處順, 1492-1534) and his mother from Buryeong Han clan. The name of pavilion derived from 'Yeong-eon-hyo-sa(永言孝思)' of the Book of Odes. Yeong-eon-hyo-sa means to secure a lasting filial duty even after parent's death. It was repaired by An Chang-guk(安昌國, 1542-1595) who was a son of An Jeon in 1590. It was a filial symbol of Sunheung An clan and a solidarity place of Honam scholars through the poetical composition on the pavilion in 16th and 17th Centuries.

Ming military camped out at Yeongsa-jeong pavilion during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3. The plaque lettering of the pavilion was written by Ju ji-beon(朱之蕃, 1558-1624) who came to the Joseon as an envoy of Ming in 1606.

The eight scenic views of Yeongsa-jeong pavilion remains six out of eight views. Its original type was an eight-fold screen. Because the names of three views on the painting match up with the poetry of Yang Dae-bak(梁大樸, 1544-1592),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work painted in the late 16th Century. The painting style is reminiscent of Yi Jeong(李楨, 1578-1607) and Yi Gyeong-yun(李慶胤, 1545-1611) who acted in the 16th Century.

The eight scenic views of Yeongsa-jeong pavilion painted by An Gyeon(安堅) and Jeolpa(浙派) painting style at that time. This picture has high academic and artistic value as the oldest work drawn from scenic spots around the Yeongsa-jeong pavilion in Namwon.